

[별지 제2호 서식]

해외연수/출장 보고서

■ 출 장 자	전진아
■ 출 장 지	스위스 제네바
■ 출 장 기 간	2018년 5월 16(수) ~ 2018년 5월 26일(토)
■ 목 적	제28차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 및 제71차 세계보건총회 참석 및 대응
■ 세부 활동사항	
○ 세부 활동 1. 날 짜: 2018년 5월 17일-18일 2. 장 소: 스위스 제네바 WHO 집행이사회의장 3. 내 용: 제28차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 참석 및 대응 ○ 세부 활동 1. 날 짜: 2018년 5월 21일-26일 2. 장 소: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 3. 내 용: 제71차 세계보건총회 참석 및 대응	

<세부활동 1>

I. 회의명 : 제28차 WHO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8.5.17.(목)-5.18(금),WHO 집행이사회의장

III. 주요 논의 안건 및 내용

☐ Independent Expert Oversight Advisory Committee: annual report

○ 주요 내용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독립외부감독자문위원회(이하 IEOAC)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이전에 비해 향상된 책무성과 투명성에 긍정적 의견을 표함(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하지만 위원회는 IEOAC가 지적한 직원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낮은 재정 지속가능성(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멕시코, 독일)과 내부 감사 서비스 사무소의 예산 감소(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 정보 기술 발달에 따른 사이버 보안 관련 위험(미국, 도미니카 공화국, 스페인), 낮은 비정부주체 참여 이행(미국, 노르웨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음. 위원회는 IEOAC가 지적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WHO가 보다 충실하게 이행해 주기를 요청하였음.

☐ Compliance, risk management and ethics: annual report

○ 주요 내용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준수, 위기관리 및 윤리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였음. 위원회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성희롱 문제에 대해 보다 개선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네덜란드, 멕시코, 캐나다 등).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소통, 적절한 심리지원, 내부감사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조직 문화를 변경해야한다고 강조함(네덜란드, 멕시코, 캐나다, 호주 등).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또한 위기 위원회 구성을 환영하였으며, 향후 위기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영국). 그 외에도 위원회는 규명된 위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줄 것을 WHO에 요청하였으며(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파나마), 준수, 위기 관

리 및 윤리 활동을 위한 충분한 자원(특히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함(독일, 파나마, 프랑스, 미국).

□ Reports of the Joint Inspection Unit

○ 주요 내용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Joint Inspection Unit 보고서를 검토하였음. 위원회는 작은 섬나라 국가들에 대한 검토가 WHO의 활동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를 질의하였으며(일본, 중국, 네덜란드), 이에 대해 사무국은 섬나라 국가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 변화 의제를 중심으로 섬나라 국가들의 다양한 보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WHO가 이들 국가들과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배기구 회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힘.

□ Evaluation: annual report

○ 주요 내용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평가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평가의 독립성, 질 개선, 조직적 학습, 평가의 활용도 강화, 유엔 평가 그룹(UNEG)와의 조화 등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촉구함(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호주). 또한 위원회는 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네덜란드, 멕시코, 스페인), 평가를 위한 별도의 예산구조를 가져가는 것을 언급하기도 함(노르웨이). 또한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WHO의 국제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함(멕시코).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평가부서에서 제출한 평가 정책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평가와 관련된 인력들의 유형과 그 역할(미국)뿐 아니라 유엔 평가 그룹의 역할을 WHO 평가 정책 보고서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노르웨이). 사무국은 정책 보고서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제143차 집행이사회 논의를 위해 수정된 버전을 제출할 것을 언급함.

□ Hosted Partnership

○ 주요 내용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WHO의 지난 1년간 진행된 다양한 파트너십과의 협력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WHO와 다양한 파트너십과의 강화된 협력 수준을 환영하였음. 위원회는 다양한 파트너십 중 모성, 신생아 및 아동 건강을 위한 파트너십을 보다 더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함(잠비아, 프랑스).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다양한 파트너십 중 Unitaid와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간 글로벌 보건 향상을 위해 주로 중저소득 국가들의 보건의료제품에의 접근성 및 가격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WHO에 상당한 규모의 펀딩을 제공하는 등 WHO와 긴밀하게 협력해온 Unitaid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음(잠비아, 프랑스, 등).

□ Human resources: annual report

○ 주요 내용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인적 자원 연례보고서를 검토하였음. 위원회는 인적 자원의 성형평 및 지리적 대표성이 조직 전반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독일, 스페인,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알제리아 등), 최근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사무총장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국가의 인력들이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미국 등). 위원회는 또한 지리적 이동 정책을 주목하였으며,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네덜란드, 러시아, 독일, 영국). 그 외에도 위원회는 Internal Justice System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 보호(호주,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와 교육 등을 통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의 필요성 역시 강조함(알제리아, 호주, 중국).

□ WHO programmatic and financial reports for 2016-2017, including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2017

○ 주요 내용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2016-2017 프로그램 예산 보고를 검토하였음. 위원회는 유연성 높은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독일, 스웨덴, 영국), 이를 위한 결과 기반 프로그램 예산 관리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함(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중국 등). 위원회는 또한 전통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영역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가 여전히 재원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였으며(네덜란드, 일본), 이러한 영역에서의 재원조달이 어려운 이유 등을 파악하고 향후 이들 영역에 대한 혁신적인 자원 동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네덜란드, 독일)

□ Financing of the Programme budget 2018-2019

○ 주요 내용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2018-2019 프로그램 예산 조달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2016-2017 프로그램 예산 조달상아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지지의사를 표함(네덜란드 등). 하지만 위원회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영역에 대한 낮은 재원 조달 수준을 우려하였으며(네덜란드,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스페인 등), 주요 자발적 기여금의 감소에 대한 우려 역시 표명하였음(호주 등). 위원회는 유연한 자금 확보 등을 위한 자원동원 전략을 강화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함(멕시코, 스웨덴).

□ Report of the External Auditor

○ 주요 내용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외부감사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외부감사에서 제안한 권고사항들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 위원회는 직접 금융협력(Direct Financing Cooperation, 이하 DFC)과 관련하여 기한이 지난 DFC 보고가 상당한 규모라는 데 우려를 표하였으며(잠비아, 스웨덴, 멕시코, 독일), 예측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조달(procurement)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였음(일본).

□ Report of the Internal Auditor

○ 주요 내용

-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는 내부감사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내부 감사를 통해 WHO 활동의 효과성을 강화하기를 요청하였음. 위원회는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 간 협력 및 조정 활동과 더불어 올해 총회에서 논의될 제13차 GPW와의 연계성을 강조하였음(노르웨이, 중국, 미국, 네덜란드). 또한 내부감사를 통해 제기된 조직 내부의 성희롱 및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내부감사에 촉구하였음(독일, 영국 등).

<세부활동 2>

I. 회의명 : 제71차 세계보건총회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8.5.21.(월)-5.26(토), UN 제네바 본부

III. 주요 논의 안건 및 내용

□ Report of the EB on its 141st and 142nd sessions, and on its special session on the draft 13th GPW, 2019-2023

○ 주요 내용

- 제141~142차 집행이사회 및 집행이사회 특별세션의 의장이 지난 1년간 집행이사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하였음. 집행이사회 의장은 제141차 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류마티스 심장질환, 거버넌스 개혁을 소개하였으며, 제13차 GPW 초안에 대한 특별회의에서 집행이사회가 투명하고 포괄적인 자문을 통한 GPW 구성 절차를 환영하였다는 점을 언급함.
- 집행이사회 의장은 제142차 집행이사회에서 제13차 GPW를 승인할 것을 총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사항과 더불어 공중 보건 준비 및 대응을 개선할 수 있는 5개년 글로벌 전략 계획 승인을 총회에 권고하기로 한 것을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하였음. 그 외에도 TB 종식을 위한 고위급 회담 준비에 관한 보고서, 소아마비 전환, 건강, 환경 및 기후 변화, 의약품 및 백신의 세계적인 부족 및 접근 문제, 공중보건, 혁신 및 지적재산권,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WHO 조정 메커니즘, WHO 개혁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고 언급함.

□ Address by 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Director-General

○ 주요 내용

- Dr. Tedros 사무총장은 그간의 보건 성과를 언급함과 동시에 현재 혹은 미래에 직면하게 될 보건 관련 과제들을 언급함. 이번 세계보건총회에서 명확한 미션과 야망찬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제13차 GPW와 관련하여 회원국과의 성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건 시스템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 Draft thirteenth general programme of work, 2019–2023

○ 주요 내용

- 세계보건총회는 지난 1년간 지역총회, 집행이사회 등을 통해 회원국들 간의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총회에 제출된 제13차 GPW를 환영하였음(알제리아, 일본, 독일, 한국 등). 회원국들은 제13차 GPW가 보건관련 SDG와 UHC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며(레바논, 인도, 스위스 등), GPW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WHO가 보다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유엔 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 및 기관들과의 다영역적 협력(레바논, 불가리아, 일본, 인도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회원국들은 제13차 GPW에 담긴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함(멕시코, 일본, 독일, 덴마크 등). 특히 유연성이 높은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알제리아 등), 기존과 다르게 자원동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불가리아, 멕시코, 덴마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원조달에 대한 WHO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함(독일 등).
- 또한 회원국들은 GPW에 제시한 회원국 중심의 접근을 환영하였으며(레바논, 러시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 성공적인 GPW 이행을 위해서는 조직 전반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함(이라크, 멕시코, 등). 그외에도 회원국은 GPW에 담긴 보건위기(알제리아, 독일, 스웨덴 등), 기후 변화(아레리아, 독일), 항생제 내성(미국, 스웨덴 등), 필수약품에의 접근

(알제리아, 인도 등), 성형평(스웨덴 등) 등과 같은 다양한 보건 이슈들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WHO의 규범적 활동 강화(불가리아, 독일, 캐나다 등), 형평 및 인권(캐나다, 인도 등) 역시 강조하였음.

- 사무총장은 그간 광범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국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기반으로 구성된 제13차 GPW를 통해 WHO의 역량을 강화하고, 계획한 활동들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힘.
- 제13차 GPW는 회원국의 반대없이 수정없이 채택되었음.

□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 주요 내용

- 세계보건총회는 신체활동에 관한 보고서와 제142차 집행이사회에서 2018-2030 신체활동에 관한 글로벌 행동계획을 총회에서 채택할 것을 권고한 결의안 EB142.R5을 검토하였음. 회원국은 건강한 성장, 건강 노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와 신체활동 간 연관성을 강조하였으며(덴마크, 자메이카, 한국 등), 글로벌 행동 계획에 담긴 신체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을 환영하였음(호주, 이라크 등). 회원국은 신체활동에 관한 글로벌 행동 계획을 이행하는데 국가 역량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캐나다, 미국), 앞으로 WHO가 보다 강화된 리더십을 가지고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함(호주 등)
- 회원국은 신체활동을 실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화된 접근을 제안하였으며(덴마크, 캐나다 등), 생애주기별로 다른 신체기능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구체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함(한국 등). 그 외에도 회원국은 신체활동과 흡연, 음주, 식이 등 건강 행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보다 다영역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힘(독일, 수리남 등).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체육 및 문화 여가 활동 강화(파나마, 호주), 보건인력 대상 교육(파나마 등), 일반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덴마크 등)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힘.
- 회원국의 반대없이 2018-2030 신체활동에 관한 글로벌 행동 계획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

□ Global Strategy for Women's Children's and Adolescents' Health (2016-2030): early childhood development

○ 주요 내용

- 세계보건총회는 2016-2030 여성, 아동, 청소년 건강을 위한 글로벌 전략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집행이사회에서 제출된 보고서보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환영함(한국, 멕시코 등). 하지만 일부 회원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건강 이슈의 일부가 다루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탄자니아, 한국 등) 보다 각 집단의 다양한 보건이슈를 향후 보고서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회원국은 여성, 아동,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회원국 내부의 가족, 지역사회 등의 전반적인 협력이 필요함과 동시에(미국 등), 국가간, WHO 조직 전반, 그리고 UN 체계와 다른 정부간 기구들과의 다영역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미국, 코스타리카등). 또한 회원국은 여성, 아동, 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각국의 역량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WHO의 지원(미국, 코스타리카) 뿐 아니라 각 국가 내에서 보건 인력 대상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국가 자체의 역량 강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 그 외에도 회원국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유병(멕시코 등),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 문제(미국, 코스타리카 등), 폭력(미국, 한국 등), 자궁경부암(불가리아, 미국, 덴마크 등) 등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기도 함.

□ Global strategy for Women's, Children's and Adolescents' health (2016-2023)

○ 주요 내용

- 그간 여성, 아동 및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노력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젠더 센시티브한 관점을 가지고(프랑스, 캐나다 등) 보건시스템 강화를 통해 양질의 보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발언(프랑스, 바레인, 탄자니아, 멕시코 등)

- 여성, 아동, 청소년 건강과 관련하여, 조기 발달에의 개입(바레인, 캐나다), 안전한 양육 돌봄 체계 구축(바레인),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 실천(프랑스, 탄자니아), 안전한 임신중절(프랑스, 탄자니아), 성폭력 등 폭력 예방(에콰도르), 적절한 영양섭취(에콰도르, 캐나다, 페루) 등의 이슈를 강조함과 동시에, 관련 보건 인력 교육의 중요성 역시 강조(멕시코, 미국)
- 그 외에도 일부 회원국은 조기 발달에의 개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안전한 양육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바레인, 캐나다 등)

□ Collaboration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with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주요 내용

- 세계보건총회는 유엔체계와 다른 정부 간 기구들과의 협력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2030 SDG 달성을 위한 협력은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함(중국, 멕시코, 노르웨이, 한국 등). 회원국은 제13차 GWP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영역적 협력에 기반하여 유엔 체계들과의 통합적이고 연합된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함(한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 최근 진행 중인 유엔 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유엔 개혁 결과들이 WHO 조직 전반의 활동들과 유기성을 가지고 잘 부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프랑스, 한국, 스위스, 핀란드 등).